

C-14. 성인 상악 전치 형태에 따른 치은의 임상적 소견

안치현,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인간에서, 임상적으로, 치주 조직의 형태학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치주 조직의 형태학적 특성과 치관의 형태가 관련되었다고 제안되어 왔다. 즉, 가늘고 긴, 치관 형태와 좁은 인접 접촉 부위를 보이는 치아는 얇고, 뚜렷한 부채꼴 형태의 변연 치은과 관련되어 있고, 짧고 넓은 치관과 비교적 넓은 인접 접촉 부위를 보이는 치아는 두껍고, 덜 뚜렷한 부채꼴 형태의 변연 치은과 관련되어 있다.

Olsson 등은 상악 중절치 형태와 치주 질환과 관련된 증상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여, 길고, 좁은 형태의 중절치를 갖는 개체에서, 짧고, 넓은 형태를 갖는 개체보다 협면에서 더 많은 치은 퇴축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상악 전치 형태와 치은 두께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길고, 좁은 형태의 중절치를 갖는 개체에서, 짧고, 넓은 형태를 갖는 개체에 비해 더 좁은 각화 치은, 얇은 치주낭 깊이, 더 뚜렷한 부채꼴 형태의 변연 치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치관 형태에 따른 치은 두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현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성인 상악 전치 형태와 치은의 임상 소견, 두께(SDM으로 측정)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및 재료

1. 연구대상

건강한 치과 대학생 100명(남 73, 여 27)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 1) 치은증식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음
- 2) 치주낭의 깊이가 4mm이상인 부위가 없음
- 3) 고정성 수복 보철물을 장착하지 않음
- 4) 현재 교정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
- 5) 상악 전치들의 심한 회전이나 마모에 의한 상아질 노출, 견치 형태 왜곡 등이 없어야 함

2. 연구방법

임상 측정과 연구 모형에서 계측을 시행하였는데, 임상 측정으로는 상악 전치부(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6개 치아에서 치주낭의 깊이, 임상 부착 수준, 각화치은의 폭, 각화치은의 두께, 치은구 유무를 조사하였다. 특히, 각화치은의 두께는 초음파를 이용한 연조직두께 측정기구(SDM)를 사용하였다. 연구 모형에서는 치관 길이, 폭, 치간유두 높이, 치궁형태를 계측하였고, 중절치의 치관 폭/치관 길이의 비율에 따라 하위 10%는 group N, 상위 10%는 group W라 분류하여, 두 그룹간의 치은 임상 소견들을 비교

하였다.

연구결과

중절치의 치관 폭/치관 길이의 비율이 낮으면, 측절치, 견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았으며, 중절치가 짧고, 넓으면, 측절치, 견치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고, 이런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001$)

group N은 group W에 비해 더 얇은 치은 두께, 더 좁은 각화치은 폭, 더 높은 치간유두 높이를 보였으나, 오직, 치간유두 높이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5$)

중절치, 측절치, 견치 모두에서 각화치은의 두께는 각화치은의 폭에 의해 유의성 있게 영향을 받았다.($P < 0.001$)

결론

현 연구에서 상악 전치 형태와 치은 두께와는 관련성이 없으나, 각화치은 폭과 치은 두께는 다양한 “biotype”을 특성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이다.